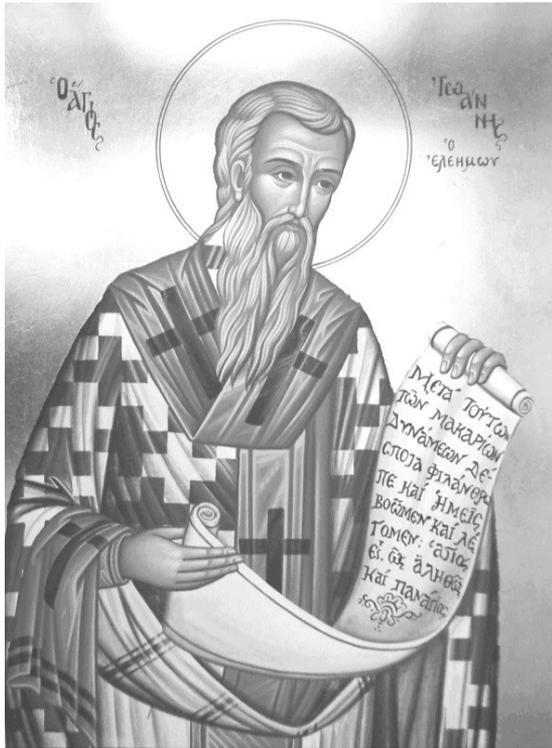




정교회 주보



자비의 성 요한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루가 제 7주일

멜리티니의 성 33인 순교자

제 3조, 조과복음 9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3조 부활 찬양송 / 82, A 213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순교자 찬양송 / 84, B 265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 갈라디아 1:11~19 / 봉독서 287
- 복음경 : 루가 8:41~56 / 127, B 72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교회의 기혼 성인들

자비의 성 요한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우리 교회에서 11월 12일 축일로 기념하고 있는 성 요한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는 키프로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지역 지도자였던 에피파니오스와 에브코스미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라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아내와 함께 참된 그리스도인 부모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요한은 재산이 많았고 새로 가정을 꾸리라는 많은 제안을 받았지만, 그는 모두 거절하며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로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에페소4:25) 나는 형제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에게 나누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일을 하는 이유이고 멈추지 않

을 것입니다. 내 재산이 내 빛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그의 빛나는 삶으로 인해 요한은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성인은 여러 해 동안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청에서 영적 등불로 두각을 나타내었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성인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충분히 베풀었기 때문에 ‘자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또한 성인은 이교도들로부터도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인은 620년에 자신의 축복받은 영혼을 평화롭게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마태오5:7)라는 말씀처럼 성인의 영혼은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 가운데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 하느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의 병

복음 성서에는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켜 다시 살리신 세 사람이 있다. 야이로 회당장의 외동 딸과 예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셨던 라자로, 나인에 살던 과부의 아들로 이들을 다시 살어나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셨다.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던 이들을 낫게 해 주시고 온전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치유의 주님이심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많이 있다.

“열 두 해 동안이나 하혈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라고 가산마저 탕진하였지만 아무도 그 병을 고쳐 주지 못하였다. 그 여자가 뒤로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러자 그 순간에 출혈이 그쳤다.”(루가 8:43-44)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이나 몸에서 유출물이 흐르면 불결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그 사람만진 모든 물건이나, 접촉한 사람들 모두 부정하다고 하여 치유가 될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했다. 따라서 열두 해 동안이나 가족과 사회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했던 여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그동안 여인이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고통을 아시고 병을 고쳐주시어 그가 가족과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이러한 기적들은 어둠속에서 죽음과 병마에 묻혀 고통 받고 있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오늘날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하여 육적인 병을 치료 받고 건강하게 장수를 누



리고 있으나 다른 한편, 영적으로는 더 많은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교회는 영적인 병을 치료해 주는 영적병원이다.

죄 속에 갇혀 노예 상태로 살면서 생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영적 약인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죄를 사함 받고 모든 영적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죄를 짓고 주님과 함께 살 수는 없다. 죽은 이들이 부활하지 못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듯이 영적으로 병든 이들도 치유 받지 않고서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여전히 우리의 건강을 위협받으며 격리된 힘든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교회에서 행해지는 거룩한 성사에 자주 참여하여 용기를 얻어 죄 없는 자유인으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자선, 또는 천국을 사는 방법!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주후 347-407)



당신이 집에 있을 때,
 가난한 이가 천국을 팔려고 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말합니다.

“쌀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대신에 천국을 가지십시오!

옷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영원한 왕국을 받으십시오!

돈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천사들의 기쁨을 얻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언제나 약간의 쌀을 주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쌀이 없습니까? 약간의 돈을 주십시오.

돈이 한 푼도 없습니까? 옷을 좀 주십시오.

한 잔의 물을 주십시오.

밥 한 공기를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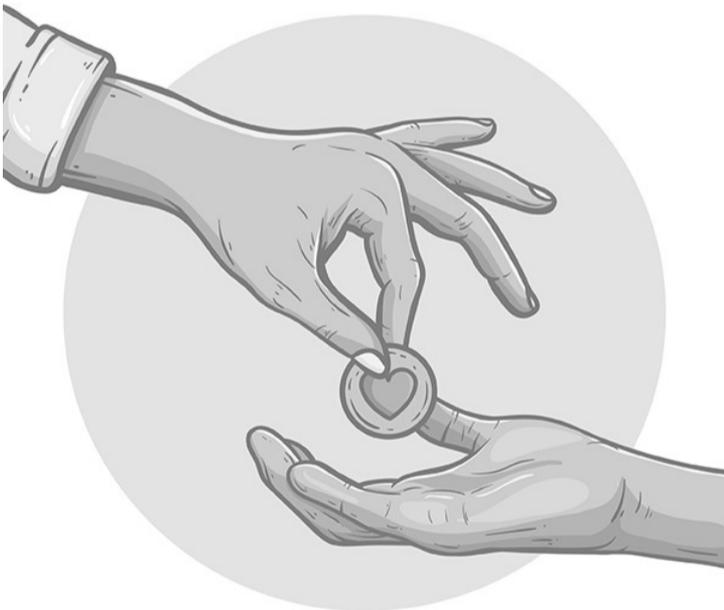
빵 한 조각을 주십시오.

약간의 기름이라도, 밀가루라도 주십시오.

무엇인가를 주십시오!

그저 주십시오!

주고, 천국을 사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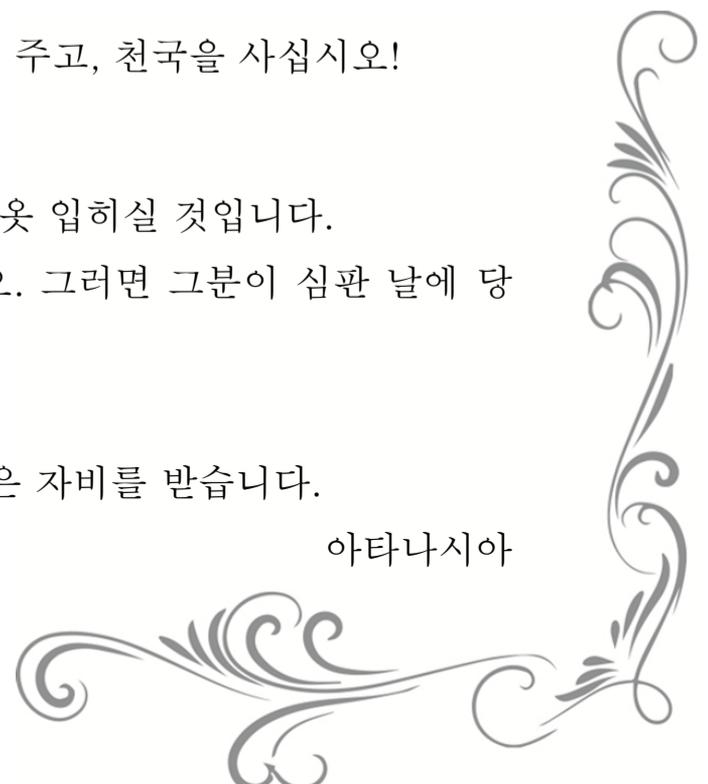
그리스도를 옷 입히십시오. 그러면 심판 날에 그분이 당신을 옷 입히실 것입니다.

당신의 헐벗은 형제의 얼굴로 계신 그리스도를 덮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심판 날에 당신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오, 거룩한 자선이여!

당신은 자비를 베풀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당신은 천배나 많은 자비를 받습니다.

아타나시아



주보 소식

대교구

■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께 보낸 프란치스코 교황의 축하 편지

2021년 10월 22일 로마의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편지를 통해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의 콘스탄티노플 교회 총대주교좌 즉위 30주년(1991년 10월 22일 세계총대주교에 선출됨)을 기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베풀어주신 많은 축복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영적인 기쁨과 당신의 위대한 사역의 모든 면에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주시는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영어로 쓰인 이 편지에서 교황은 또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나는 창조물을 보전하기 위한 당신의 헌신과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입장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문제에 대해 나는 많이 배웠고 계속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시작되면서 사람의 건강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인류의 영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귀하의 증언과 가르침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교 신자들 간의 화해를 이루고, 사회가 온전히 회복하는데 있어서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 사랑과 진리의 대화라는 것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깊이 신뢰하며 계속해서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우리 교회들 사이의 친밀함과 연대는 인류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세계적 형제애와 사회 정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 ‘위드 코로나’에 따르는 새로운 방역지침에 의한 예배참여

11월 1일 부터 ‘위드 코로나’에 따르는 새로운 방역지침이 발효되었습니다. 새로운 방역지침에 따라 성당에서의 예배 참여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을 맞은 신자들은 더 많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코로나 19로 성당에 직접 오셔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신자분들은 각 지역 성당의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새로운 방역지침에 따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예식



11월 8일(월)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와 천상의 모든 천사들
11월 9일(화) 성 넥타리오스 대주교
11월 13일(토)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